

장충단 관련 자료를 통한 장충단 부지와 건물 특성 분석

Analysis of Jangchungdan site and building characteristics
through Jangchungdan related data

홍 현 도*

Hong, Hyeon-Do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과 박사수료, 서울역사박물관 학예연구사)

Abstract

Jangchungdan is located at the skirt of Namsan near Namsomundongcheon, so the buildings are arranged with many podiums. The steps for people to go up and down such podiums are placed around the buildings. The Western-style constructional methods and materials introduced by the opening of ports were used for a variety of Jangchungdan buildings with differentiated levels of podiums, for Jangchungdan memorial ceremonies, and other building materials were also installed along with the changes in clothes and lifestyles. Although Dansa was constructed in the Chinese style, it reflected the shrine plane used in Joseon Dynasty, which in turn is thought to reflect Gubonsinjam, the basic concept of Gwangmu Reform, as in the case of Jangchungdan memorial ceremonies.

주제어 : 장충단, 대한제국, 원수부, 근대건축

Keywords : Jangchungdan, Korean Empire, Board of Marshals, Modern Architecture

1. 서론

장충단은 을미사변과 갑오농민운동으로 사망한 관군의 제사를 지내기 위하여 1900년 고종의 명에 의해 원수부가 건립하였다. 1900년 11월 10일 첫 제례를 시작으로 1909년까지 19차례 제례가 치러졌으며, 같은 해 11월 이토 히로부미의 추도회가 장충단에서 열리면서 장충단제는 중지되었다.¹⁾

1919년 장충단은 공원으로 조성되었으며, 1932년 장충단 동편 언덕에는 이토 히로부미를 추모하는 박문사가 건립되었다. 광복을 거치며 장충단은 공원으로 역할을 계속하였고, 정치인의 유세장으로도 사용되었다.

장충단 건립 당시 단사, 비각, 양위헌, 장무당, 요리정, 전사청 등의 건물들이 있었으며, 이 건물들 대부분은 일제강점기와 광복을 거치며 1960년대까지 남아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그 이후 장충단비와 장명

등을 제외하고 모두 철거되었으며, 현재 1959년에 청계천에서 옮겨진 수표교를 비롯하여 이후 건립된 경로당과 사명대사, 이준 등 애국선열 동상 등이 있다.

장충단과 관련한 연구로는 크게 장충단에 대한 역사적 의미 변화를 분석한 것²⁾ 장충단의 물리적 변화를 분석한 것으로 나뉜다.³⁾

이 중 장충단의 건립부터 일제강점기까지의 공간 변화와 관련해서는 김해경·최현임의 연구가 있다.⁴⁾ 해당 논문은 장충단과 관련하여 『장충단영건하기책』과 「이등공추복사원신축부지설계평면도」, 「장충단공원평면도」 등을 통하여 장충단 권역의 입지 특성과 구

2) 이민원, 「대한제국의 장충사업과 그 이념 - 장충단과 모충단을 중심으로」, 『동북아문화연구』 1-33, 2012.

윤기엽, 「장충단·박문사의 사적(史的) 변천과 그 의미 - 일제강점기 장충단의 공원화와 박문사 건립을 중심으로」, 『한국사상문화학회』 85, 2016.

3) 김해경 외, 「일제강점기 장충단공원 변화에 관한 시계열적 연구」, 『한국전통조경학회』 31-4, 2013.

박희용, 「대한제국기 獎忠壇의 조성배경과 공간구성」, 『서울과 역사』 93, 2016.

4) 김해경·최현임, 「일제강점기 장충단공원 변화에 대한 시계열적 연구」, 『한국전통조경학회』 31-4, 2013.

* Corresponding Author : h-syong@hanmail.net

1) 박희용, 「대한제국기 獎忠壇의 조성배경과 공간구성」, 『서울과 역사』 93, 2016, 140쪽.

18 논문

성요소의 배치에 대해 정리하였다.

장충단 건축과 관련해서는 박희용의 연구가 대표적이다.⁵⁾ 박희용은 장충단 입지는 조선시대 군인들의 훈련과 군영에 관련된 장소성을 갖고 있다고 보았다. 또 장충단은 성역화된 영역으로 조성된 ‘단’을 지칭하고 이 장소 안에 여러 시설물을 배치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또 장충단을 외기지와 내기지로 구분하고, 남소문 동천을 기준으로 건축물 영역과 장충단비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또 남산기슭에 위치한 장충단에 화초를 구입하여 경관을 꾸민 것을 휴식과 여가적인 장소로 구성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장충단의 영역에 대한 전반적인 모습과 이에 대한 변화에 주목하는 것으로 일부 개별 건물의 규모와 배치를 논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장충단 부지 구성과 건물 및 시설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는 미흡하다.

이번 연구에서는 장충단 연구의 기본이 되는 문헌자료인 『장충단영건하기책』을 바탕으로 대한제국에서 일제강점기 전후의 도면, 사진 등의 시각자료 등을 통하여 장충단의 부지 구성과 개별 건물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장충단 관련 자료 분석

2-1. 『장충단영건하기책』

『장충단영건하기책(獎忠壇營建下記冊)』은 장충단 건설 당시 사용된 금액을 기록한 것이다. 장충단 영건과 관련하여 기존 남소영 전각의 훼손과 장충단 내 시설의 건설, 필요 물품, 화초, 공사 자재에 소요되는 물품과 건수, 단가를 기록하였다.

표 1. 『장충단영건하기책』 내 시설별 조성 방법

조성 방법	대상 시설
撤毀	大廳長臺中大廳
新建	壇祠, 典祀廳, 碑閣, (碑閣)木柵, 料理亭, 旗柱, 內基地 木柵, 外基地 鐵索柵, 大樑板橋, 中板橋, 廁間
重建	揚威軒, 壯武堂
修理	庫直處所, 士卒處所
修築	石橋
	旗章(新造), 花草(買), 庫直處所 土墻(新築), 溝渠 石築(修補), 家舍田土(買)

※ 굵은 글자는 부재가 기록되지 않은 것이다

장충단 건축과 관련하여 시설별 축조 방법을 신건, 중건, 수리, 수축 등으로 구분하여 기록하고 있다. 단사, 전사청, 비각, 요리정, 내기지 목책, 외기지 철삭책, 대양판교, 중판교, 측간 등은 신건하였고, 양위헌, 장무당은 중건, 고직처소, 사졸처소 등은 수리하였으며, 석교는 수축한 것으로 되어 있다.

대부분 건축물은 사용된 부재가 기록되어 있으나, 일부 건축물은 부재가 기록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부재가 기록되지 않은 것은 단사, 비각, 비각 목책과 목책문, 요리정, 요리정 목책과 목책문, 내기지 목책과 목책문, 외기지 철삭책 등으로, 해당 시설들은 모두 장충단 내에 새로 조성된 것들이다.

부재가 기록된 시설 중에서도 건설에 사용된 모든 부재가 기록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새로 건설된 전사청은 기록에서 6칸이지만 기둥은 6개, 도리는 3개로 기록되어 있어 실제 사용될 것으로 추정되는 수량과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실제 사용된 부재의 수량과 기록된 수량이 차이를 보이는 것은 기존 남소영 건물을 철거한 후 일부 부재를 재사용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것은 『장충단영건하기책』이 영건의례와 같이 공사의 내용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영건에 사용된 돈이 기록된 것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2-2. 시각 자료

(1) 지도 및 배치도

<그림 1>은 1915년에 제작되고 1917년에 발행되어 일본 나라문화재연구소에 소장 중인 「경성」 지도이다. 1만분의 1 축척으로 장충단 내 건물과 함께 담장, 다리, 도로, 축대 등의 시설물 배치를 알 수 있다

<그림 3>은 1931년 이토 히로부미를 추모하기 위한 박문사의 건설을 위해 제작된 「이등공추복사원신축부지설계평면도(伊藤公追福寺院新築敷地設計平面圖)」이다. 이 지도는 600분의 1 축척에 5m 간격의 등고선이 표시되어 있으며, 1931년 당시 장충단공원 내 건물의 용도 및 명칭, 계단, 우물 등의 시설이 확인된다.

<그림 4>는 1940년에 조선신문사가 장충단공원 내 흥아일본전망 대박람회 개최를 위하여 작성된 도면이다. 이 도면은 지적도를 바탕으로 단사, 양위헌, 장무당, 요리정, 장충단비, 다리, 축대 등이 표현되어 있다.

5) 박희용, 「대한제국기 獎忠壇의 조성배경과 공간구성」, 『서울과 역사』 93, 2016.



그림 1. 「경성」, 1915년
(일본 나라문화재연구 소장)



그림 2. <그림 1> 장충단 부분



그림 3. 「이등박문추복사 원신축부지설계평면도」, 일부를 흥아일본전망 대박람회 부지로서 조선신문사에 유상 대부건」첨부 도면, 1931년(국가기록원)



그림 4. 「장충단공원부지의 유상 대부건」첨부 도면, 1940년(국가기록원)

(2) 사진류

<그림 5>는 전기박물관에 소장 중인 『보스트윅 사진첩』에 실려있는 사진이다. 이 사진은 장충단 단사 앞에서 원수부 및 대한제국 군인들이 1900년 10월 장충단지 무렵 촬영된 사진이다. 장충단사 사진 중 가장 근접하게 촬영된 사진으로 전체적인 건물 형태를 파악할 수 있다.

<그림 6>은 「Korean and French group」라는 제목이 붙은 사진으로 장충단 양위헌의 앞에서 촬영된 것이다.⁶⁾ 사진에는 한성전기회사 사장이었던 보스트윅(1870~1931, H. R. Bostwick), 궁내부 찬의관을 지낸 샌즈(1874~1946, William F. Sands, 山島), 법어학교 교사를 지낸 에밀 마르텔(1874~1950, Emile Martel, 馬太乙) 등이 찍혀있다. 이중 샌즈는 1904년에 파나마 공사관 비서관으로 파나마로 파견되었기 때문에 이 사진은 1904년 이전에 촬영된 것이다.

<그림 8>은 서울역사박물관에 소장 중인 『한국풍

속풍경사진첩』 제3집으로 1908년 일한서방(日韓書房)과 경성사진관에서 발행한 것으로 「경성훈련원의 일부」라는 이름의 사진이 실려있다. 그러나 이 사진은 장충단의 양위헌을 찍은 것으로, 양위헌 왼편 뒤쪽으로 단사가 함께 촬영되었다. 사진첩 발행일로 유추했을 때 1908년 5월 이전에 촬영된 것이다.

<그림 8>에서 양위헌 앞으로 갓을 쓴 성인과 2명의 아이가 함께 찍혀있다. 이 사람들은 장무당을 촬영한 <그림 10>에도 등장한다. <그림 10>은 사진엽서로 하단에 '장충단 경성'이라고 쓰여있다. 사진은 장무당과 함께 부속건물들을 촬영한 것으로, 장무당 앞에 <그림 8>에 등장한 사람들이 찍혀있어 같은 시기에 촬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림 11>과 <그림 12>는 사진엽서로 양위헌을 촬영한 사진이다. 각각 사진의 제목은 '경성 장충단공원의 벚꽃[京城獎忠壇公園ノ櫻花]'과 '경성창경원의 벚꽃[京城昌慶苑の櫻花]'으로 되어 있지만 <그림 12>는 양위헌 앞의 벚꽃 풍경을 담은 것이다. <그림 11>에는 양위헌 옆으로 벤치가 놓여있어 장충단이 공원화된 후에 촬영된 사진이다.

<그림 13>, <그림 14>는 전기박물관에 소장된 사진으로 각각 양위헌과 요리정을 촬영한 사진이다. <그림 13>은 <그림 10>과 유사한 구도로 더 먼 거리에서 촬영된 것이나, 장무당 뒤쪽의 부속 건물의 모습에서 차이를 보인다. <그림 14>는 요리정을 촬영한 사진으로 가로로 긴 장방형의 형태로 전면에 계단을 두고 있다. 전기박물관에는 이 두 사진과 함께 장충단의 옛모습 [獎忠壇의旧態]이름의 사진이 2장 더 소장되어 있는데, 모두 같은 시기에 촬영된 것으로 보인다. 촬영 시기를 추정할 수 있는 것으로는 1921년 장충단공원을 조성하면서 설치된 다리의 사진이 있어 그 이후 촬영된 것으로 보인다.

사진과 엽서 외에도 신문사진에도 다양한 장충단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림 15>, <그림 16>은 단사 모습을 원경으로 담고 있으며, <그림 17>에는 단사와 함께 장충단비가 실려있다. <그림 18>은 장충단 건물 중 하나의 지붕을 촬영한 것으로, 해당 건물은 양위헌이다.

6) Korean and French group, Seoul, Korea, c.1900 Stock Photo - Alamy, 2022년 1월 31일 수정, 2022년 2월 11일 접속, <https://www.alamy.com/stock-photo-korean-and-french-group-seoul-korea-c1900-172332886.html>.



그림 5. 「장충단사 기념사진」
1900년(전기박물관)



그림 6. 「양위헌 단체 사진」
1904년 이전 추정



그림 7. 장충단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그림 8. 단사와 양위헌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그림 9. 양위헌과 장무당
(개인소장)



그림 10. 장무당
(서울시립대학교박물관 소장)



그림 11. 양위헌



그림 12. 양위헌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그림 13. 양위헌
(전기박물관 소장)



그림 14. 요리정
(전기박물관 소장)



그림 15. 매일신보 1912년 12월 27일



그림 16. 매일신보 1913년 1월 23일



그림 17. 조선일보
1927년 8월 4일



그림 18. 조선신문
1926년 11월 4일

3. 장충단 부지 및 건물별 특징

3-1. 장충단 부지 구성과 특징

장충단은 남산의 북동쪽에 위치하여 동서 능선 사이 남소문동천이 흐르는 골짜기에 위치한다. 장충단 대부분 건물이 서쪽 능선에 기대어 동향을 하고 있으며, 남소문동천 건너편 동쪽 능선에 서향을 하고 장충단비를 모신 비각이 있다.

능선에 기대어 장충단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단차를 두고 건물이 조성되어 있다. 북쪽의 진입로를 따라 장충단 구역 내로 들어오면 서쪽으로 단을 두고 그 위로 장무당, 양위헌, 단사가 있다. 장무당과 양위헌은 단 바로 위에 위치하지만, 단사는 앞으로 공간을 두어 단 안쪽으로 별도의 3개 단 위에 위치한다. 위의 3개 건물이 놓인 단의 남쪽으로 보다 높은 단에 요리정이 놓여있으며, 단사 우측 경사지 위로 전사청이 있다.

이렇듯 장충단은 여러 단으로 나뉘어 조성되었기 때문에 각 단을 오르내리기 위한 계단이 건물별로 조성되었다. 『장충단영건하기책』에 건물별 계단의 층급과 개수가 기록되어 있으며, 이 계단들은 모두 변석(邊石)이라 기록된 경사진 소맷돌을 갖추고 있으며, 사진 자료를 통해 계단의 모습을 알 수 있다.

단 제일 아래는 가로로 긴 광장을 조성하였는데, 이 공간은 제례에 참여한 시위대 등의 대기 및 분열식을 위한 공간으로 쓰였다.⁷⁾

7) 홍현도, 「「獎忠壇祠 기념사진」 촬영 시기와 獎忠壇祭 운영」, 『서울과 역사』 No.109, 2021, p.194.

표 2. 『장충단영건하기책』에 기록된 건물별 계단 층급 및 갯수

건물명	계단 층급	계단 개수
단사	4단	2좌
양위헌	6단	3좌
	4단	1좌
장무당	4단	2좌
요리정	7단	1좌
	4단	1좌



그림 19. 양위헌 전면 6단 계단(<그림 8> 세부)



그림 20. 단사 전면 4단 계단 (<그림 16> 세부)

그림 21. 요리정 전면 7단 계단(<그림 14> 세부)

여러 단으로 장충단 영역을 조성함에 따라 단과 능선 사이에는 축대 또는 화계가 조성되었다. 전사청 일부와 양위헌, 장무당, 요리정에는 화계를 두었고, 고직 처소 일간문, 전사청 일부에는 축대를 조성하였다.

장충단 영역 내에 남에서 북으로 남소문동천이 흐르며, 남소문동천으로 유입되는 수도들이 동서로 위치한다. 서쪽으로는 전사청과 단사 사이를 지나 요리정의 북편으로 흐르는 수도가 있으며, 동쪽으로는 장충단비 남쪽으로 수도가 있었다.

이러한 수도의 정비 역시 『장충단영건하기책』에 기록되어 있다. 서쪽 수도는 전사청 일각문과 함께 담장 아래의 수도와 석축을 수리하였다. 요리정 북편으로 지나는 수도를 건너기 위한 청판석 2괴가 기록되어 있으며, <그림 4>에서도 확인된다. 남소문동천 동쪽 수도는 우물을 파고 은구를 정비하는 것과 함께 기록되어 있으며, <그림 22>에서 해당 수도가 확인된다. 이외에도 남소문동천 석축과 고직처소 일각문 수도, 내기 지 목책 수도 등과 함께 정비하였다.

수도와 함께 이를 건너기 위한 석교, 판교(板橋) 등도 장충단 내에 위치하였다. 석교는 기존의 것을 수축(修築)하여 사용하였다.⁸⁾ 이 석교는 단사가 위치한 남

소문동천 서편에서 장충단비가 있는 동편을 연결하는 다리로 추정된다. 이 다리는 <그림 2>에서도 표시되어 있는데, 장무당과 장충단비가 일직선으로 이어지는 곳에 놓여있고, 홍예교로 표시되어 있다. 이 다리의 모습은 신문에서도 확인되는데, 다만 석재 가공 수법 등으로 보았을 때 건립 이후 수리를 거친 후로 추정된다.⁹⁾

『장충단영건하기책』에는 석교 이외에도 대양판교와 중판교가 기록되어 있는데, 지적원도에 따르면 장충단 초입에 남소문동천으로 유입되는 지류를 건너는 다리와 남소문동천을 건너는 다리로 추정된다. 두 다리는 석교와 달리 새로 만들었는데, 난간을 갖춘 목교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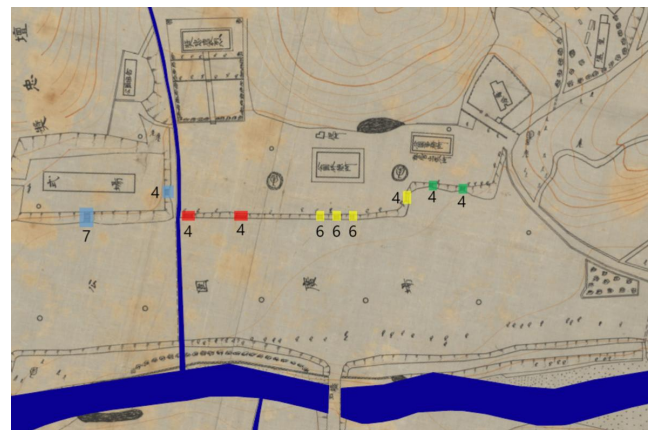


그림 22. 장충단 건물별 계단과 수도(■ : 단사, ■ : 양위헌, ■ : 장무당, ■ : 요리정, <그림3> 필자 재가공)

표 3. 『장충단영건하기책』 대양판교와 중판교 주요 내용

물 품	대양판교	중판교
柱木	9개	6개
別大椽 <small>椽木</small>	12개	9개
駕木 <small>耳機</small>	6개	4개
長散里木	12개	10개
加枕木	8개	-
大椽木 <small>橫板</small>	125개	-
厚張板 <small>廳板</small>	-	20립
長松 <small>厲貌</small>	-	6립
欄杆	俱板灰色油漆	俱灰色油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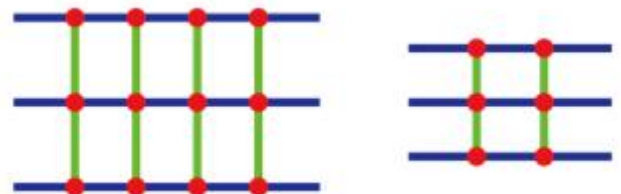


그림 23. 대양판교(좌)와 중판교 개념도 (● : 주목, ■ : 별대량, ■ : 가목)

8) 석교를 수축하기 위해서 쓰인 재료는 청판석 3괴 뿐이며, 석수 40명, 담군 200명, 모군 30명이 동원되었다. 이와 함께 석교 수축을 위하여 비개목을 빌리기도 하였다.

9) 조선일보 1934년 3월 7일.

두 다리는 모두 기둥인 주목(柱木)과 기둥을 연결하는 연목(椽木) 역할의 별대량(別大樑), 귀틀[耳機] 역할의 가목(駕木)이 사용되었으며, 다리면 마감은 대량판교는 횡판(橫板) 역할을 하는 대연목(大椽木)을, 중판교는 청판(廳板) 역할을 하는 후장판으로 서로 다른 재료를 사용하였다. 대양판교의 경우 구조를 보강하기 위한 가침목(加枕木)이 추가로 사용되었다. 두 다리 모두 회색으로 칠한 난간이 있었는데, 대양판교는 판재를 갖추고 있었다.

3-2. 단사(壇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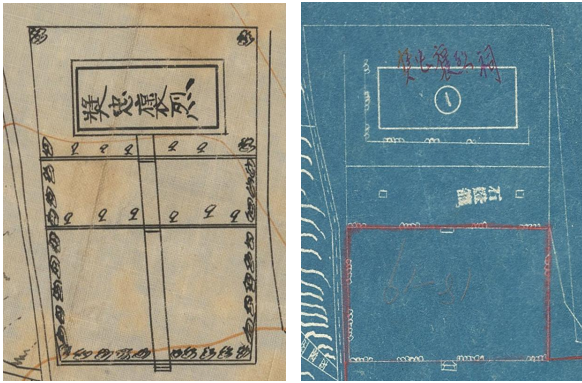


그림 24. 배치도에 나타난 단사(좌 : <그림 3> 부분, 우 : <그림 4> 세부)

단사는 장충단의 중심 건물로 위패를 모시고 장충단체를 지내는 건물이다. 『장충단영건하기책』에서 단사와 관련하여 「단사신건수장삼층축단급단후주릉여전정보토수설소입(壇祠新建修裝三層築壇及壇後主龍與前庭補土修設所入)」에 관련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기록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 단사는 새롭게 지어진 건물로 3층의 단 위에 지어졌다. 이러한 모습은 각종 배치도에서도 확인되는데, 1단이 가장 깊으며, 단이 올라갈수록 단의 깊이는 줄어든다. 단의 중앙에는 단을 오르기 위한 계단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장충단영건하기책』에는 보석(步石) 5괴가 기록되어 있다.

단사 2번째 단에는 장명등이 양쪽으로 놓였는데, 현재 장충단에도 남아 있다. 1941년 배치도에서는 석등롱(石燈籠)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장충단영건하기책』에는 장명등 2좌와 장명등 유리문도 기록되어 있다. 이의 각종 사진에서도 석등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단사는 3번째 단 위에 지어졌는데, 『장충단영건하기책』에서 단사는 별도의 부재 없이 단순히 15칸으로 기록되어 있다. 「장충단사 기념사진」에서 단사의 구체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5. 단사 앞 장명등(<그림 8> 세부)

단사 기단은 석재를 이용한 외벌대로 벽돌로 측면 벽체를 구성하였다. 벽끝 폭은 1.5b로 길이면과 마구리면이 한 켜가 되도록 번갈아 총 58단을 쌓았으며, 그 위로는 전면방향으로 돌출되도록 2~3단을 더 쌓았다. 이러한 벽끝쌓기 형태는 영식쌓기[英式積, English Bond]와 불식쌓기[佛式積, Flemish Bond]에서 나타나는 방식이나, 사진에서 벽 끝만 확인되기 때문에 단정하기는 어렵다.

「장충단사 기념사진」은 단사를 정면에서 촬영한 것으로 배면 모습을 알 수 없으나, 단사 문안으로 보이는 내부 벽에 태극기가 걸려있으며, 벽면에 창호 등이 확인되지 않아 배면에 개구부는 없던 것으로 추정된다.

단사와 같이 제례를 위한 건물 중 벽체를 벽돌로 구성한 건물인 종묘 정전·영녕전·공신당 등과 선회궁 등의 사우(祠宇)들은 정면을 제외한 측면과 배면 모두 벽돌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예를 볼 때 단사 역시 측면과 배면을 모두 조적조로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

건물 전면에는 2개의 기둥을 두어 3칸으로 구분하였으며, 기둥 안쪽 벽체에는 칸마다 아치문을 두었다. 다만 내부 벽체 재료는 확인할 수 없으나, 문을 아치로 구성한 점, 벽면에 부재 없이 마감한 한 점으로 보았을 때 측면과 마찬가지로 조적조로 보인다.

단사와 같이 정면 3칸으로 전면에 퇴칸을 두고, 3면을 조적조로 마감하는 형식은 선회궁과 1885년 지어진 정무사(靖武祠)¹⁰⁾ 등으로 대부분 제사를 위한 건물이다.¹¹⁾

단사 정면 기둥은 원주로 기둥 상부를 창방으로 벽체와 기둥을 연결하였다. 기둥과 기둥, 기둥과 벽체 사

10) 임오군란의 진압과 조선 내 청국의 세력 확장을 위해 조선에 진출한 청나라 오장경(吳長慶)을 모신 사당으로 1885년 하도감에 건립되었다. 1979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의 한성화교중학 뒷산으로 이전하였다.

11) 박성형, 『벽전 - 우리나라 벽돌 건축의 조영원리』에서 건물 3면을 외부에서 봤을 때 목부재가 보이지 않도록 벽돌로 벽체를 마감한 예로 종묘 영녕전, 선회궁, 종묘 공신당, 종묘 칠사당을 예로 들었다. 이 역시 모두 제례를 위한 건물이다.

이에는 틀을 짜고 조각으로 장식을 하였는데, 궁궐 단 집을 장식하는 허주유음(虛柱流音) 혹은 낙양각(落陽刻)과 유사하다. 허주류음은 궁궐 정전 및 불전 천장에 단집을 구성하기 위한 것이며, 낙양각은 건물 외부 기둥 사이를 장식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허주유음과 낙양각은 단사와는 차이를 보이는데, 단사는 조각이 얇아 투각되는 면이 더 많으며, 낙양각의 경우 양쪽의 장식이 상부로 연결되지만, 단사의 경우 삼각형 모양으로 상부를 받치는 형태이다.

단사의 장식은 허주류음이나 낙양각 보다 중국의 쾌락미자(挂落帽子 : Guà luò mēi zi)의 형태와 유사하다.¹²⁾ 쾌락미자는 중국에서 행랑 및 건물 외부 기둥 사이를 장식하는 것으로, 틀인 대변(大邊)과 그 사이를 장식하는 영조(樑條), 대변을 받치는 화아자작체(花牙子雀替)로 구성되어 있다.¹³⁾ 단사 쾌락미자의 영조에는 화반과 조롱박 문양을 번갈아 배치하였으며, 화아자작체는 초화문을 투각하였는데, 중앙에 5잎의 꽃을 두고 주변을 잎사귀로 장식하였다. 이는 대한제국을 상징하는 이화문이다. 대변의 중앙 아래에 역삼각형의 장식이 있으며, 장식 중앙에는 팔각판을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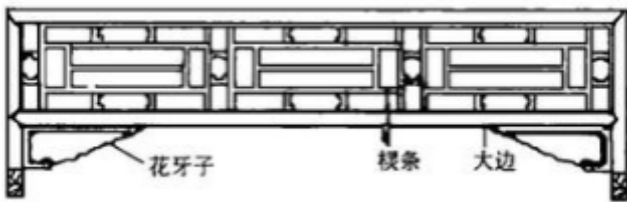


그림 26. 쾌락미자 세부 명칭



그림 27. 경운궁 정관현 그림 28. 덕소의 황실건물(그림 38 부분)

이러한 쾌락미자를 적용한 건물로는 1900년 무렵 지

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경운궁 정관현과 덕소(德昭)에 있었던 황실 건물이 있다.¹⁴⁾ 정관현은 정면과 측면에 퇴칸을 두고 목조기둥을 세운 후 쾌락미자를 두었다. 영조에는 초화문과 박쥐문을, 화아자작체는 박쥐문을 투각하였다. 단사와 다른 점으로는 영조를 3개로 나눈 후 아래로 거꾸로 내린 기둥인 수주(垂柱)를 두었다는 것이다. 기둥 아래쪽으로 투각된 난간을 두었다. 덕소의 황실 건물 역시 3면 외주 상부에 쾌락미자를 두고, 기둥 아래에는 난간을 두었다. 쾌락미자는 정관현과 같이 수주를 둔 형태이다.

기둥 안쪽 벽체에는 3개의 아치문을 두었는데, 좌우 문보다 가운데 문 폭이 가장 넓다. 『조선일보』 사진에서 아치형 개구부에 4짝 판문이 확인되는데, 이와 유사한 형태로는 경운궁 유현문이 있다. 담장문인 유현문은 앞뒤로 벽돌을 아치로 쌓고 그 사이에 목조틀에 문을 달아 조적벽체 안쪽으로 문이 위치한다. 그러나 단사는 벽체와 판문의 깊이 차이가 거의 없으며, 「장충단사 기념사진」에서 판문 경첩이 벽체와 바로 연결되어 있어 유현문과는 달리 벽체에 직접 경첩을 연결하는 형태였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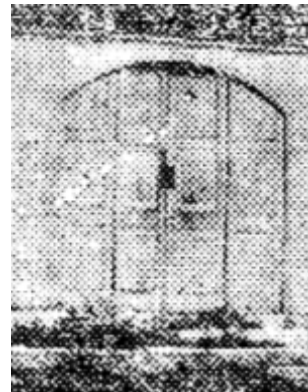


그림 29. 단사 판문



그림 30. 경운궁 유현문

단사의 아치문 상부에는 각 칸별로 3구역으로 구분하여 초화문 장식벽을 두었는데, 중앙 장식벽은 좌우대칭이며, 좌우의 장식벽은 서로 반전인 형태이다. 장식벽에는 5잎의 꽃 3송이와 넝쿨문으로 장식되어 있는데, 이 꽃은 화아자작체에 투각된 꽃과 같은 이화문(李花紋)으로¹⁵⁾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정관현, 고종어극 청경기념비전 만세문, 돈덕전 등에서도 확인된다. 특히

12) 쾌락미자는 도괘미자(倒挂帽子), 쾌락(挂落) 등으로도 불리며, 기둥 사이 상부를 장식한다. 기둥 아래쪽에는 난간 형태의 좌등미자(坐凳帽子)가 있다.

帽子_百度百科, 百度百科, 2021년 1월 31일 수정, 2021년 2월 12일 접속, <https://baike.baidu.com/item/帽子>.

차주환 외 역, 왕치권 저, 『중국건축도해사전』, 고려, 2016, p.204.

13) 中式建筑倒挂帽子图案(第1页), 简笔画大全, 2021년 2월 12일 접속, <https://j.17qq.com/article/ocmhckkdv.html>.

14) 카를로 로제티의 『꼬레아 에 꼬레아니』에서 '서울 근교에 있는 덕소(Tok-so) 도로상의 황실 누각'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그리피스 컬렉션의 한국사진』에 같은 건물을 '정관현'으로 표기하였지만, 그것은 오기이다.

15) 이지수 외, 「개항 이후 대한제국기까지 육군 복식의 상징 문양에 대한 연구」, 『한국복식학회』 No. 70 Vol. 4, 2020.

24 논문

칭경기념비전 만세문의 이화문은 단사와 같이 당초문이 함께 장식되어 있다.



그림 31. 칭경기념비전 만세문 이화문 그림 32. 돈덕전 난간 이화문

장식벽 위쪽으로는 굴곡이 있는 살로 살창을 만들었으며, 어칸의 살창 중앙에는 편액을 달았다. 편액은 모판형[木盤形]¹⁶⁾이며, 글씨는 확인되지 않으나 고종이 장충포열(獎忠褒烈)이라는 현판을 사액했다는 기록에 따라 고종 어필인 장충포열 현판으로 추정된다.¹⁷⁾



그림 33. 단사 어칸의 패락미자와 현판(<그림 5> 세부)

편액 테두리에도 화아자작체와 문양벽에 쓰인 것과 같은 형태의 이화문이 보이며, 편액의 아래쪽에는 동물 모양 받침 부재를 두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는 드문 형태로 중국에서 주로 사용되는 패변탁(牌匾托) 또는 편액탁(匾額托)으로 불리는 것이다. 모양에 따라 여의탁(如意托), 사자탁(獅子托) 등이 있는데, 「장충단사 기념사진」에서는 사자탁 형태이다.



그림 34. 사자패변탁(獅子牌匾托)

『장충단영건하기책』에는 편액과 직접적으로 관련한 내용은 없으나 편액을 덮는 도리홍사(桃李紅紗)가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어필 현판인 장충포열 현판을 덮기 위한 사롱(紗籠)으로 추정된다.¹⁸⁾

단사 전면 퇴칸 천정에는 좌우 각 2개씩 총 4개의

등이 걸려있다. 이 등과 유사한 유물이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데,¹⁹⁾ 등은 6각으로 나무틀에 유리를 끼었다. 사진 속 등은 유소(流蘇)가 달려있으나, 유물에는 국립고궁박물관 유물에는 유소가 없다. 『장충단영건하기책』에 패등곡쇠(掛燈曲釧) 8개가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이 6각 패등을 걸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사진에서는 4개만 걸려있어, 나머지 4개는 건물 내부에 걸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그림 35. 고궁박물관 소장 초자육각패등(硝子六角掛燈)



그림 36. 「장충단사 기념사진」 내 패등 (<그림 5> 세부)

외주와 내벽에는 검정 바탕에 글씨를 쓴 주련 4개가 있는데, 주련 상단에는 조각이 있다. 내벽 주련의 글씨는 확인되지 않지만, 외주 주련 글씨는 일부 확인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一劍益皇恩奮然能…
三杯酌靈烈懷其…

지붕은 팔작지붕으로 처마 끝이 건물 외벽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합각면은 건물 벽체 안쪽으로 위치한다. 이와 유사한 지붕으로는 경운궁 정관현과 덕소의 황실 건물을 들 수 있다.



그림 37. 경운궁 정관현 배면도



그림 38. 덕소의 황실 건물

지붕은 기와가 아닌 골판을 덮었으나 골판 재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단사가 건립된 무렵인 1900년대 초반에 사용된 골판의 재료는 주로 연강(煉鋼)으로 가볍고 부식에 강하며 시공이 쉬워 경운궁 중명전, 명동성당, 동대문발전소, 전차 정거장 등 크고 작은 건물에 사용

16) 문화재청, 『궁궐 현판 고증조사』, 문화재청, 2015, p.6.

17) 賜額曰獎忠褒烈 홍세형, 「장충단사적(獎忠壇事蹟)」, 『충의공가자』, 1927.

18) 국립고궁박물관, 『조선왕실의 현판 I』, 국립고궁박물관, 2020, p.9.

19)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궁중유물도록』, 1986, p.250.

되었다.

골판 아래로는 각재로 된 서까래가 있으며, 지붕 전면 처마 아래로 물받이가 있다. 물받이 양쪽 끝으로 홈통이 측벽을 따라 건물의 아래까지 이어져 있는데, 『장충단영건하기책』에 물받이 홈통과 관련하여 처마 양철홈[檐下洋鐵浩陰]이 기록되어 있다.

어칸 문 안으로는 건물 내부가 보이는데, 내부에는 사괘 태극기가 함께 보인다. 『장충단영건하기책』에는 판각한 국기현장(國旗懸章)이 포함되어 있어 내부 태극기가 이 판각한 국기현장을 직접 걸거나 판각 후 국기를 찍은 종이나 천을 건 것으로 짐작된다.



그림 39. 단사 어칸 내부 태극기와 팔괘 태극기(그림 5 세부)

「장충단사 기념사진」은 흑백으로 건물에 단청 유무를 확인할 수 없으나, 상단 장식벽과 살창, 쾌락미자의 음영을 통해 색상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1939년 김창제의 일기 속에서 단사의 단청과 관련된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獎忠壇에는 前日에 보지 못하던 建築이 만히 있다. 肉彈三勇士의 銅像이라던지 澁澤青淵의 頌德碑라던지가 다 新色彩를 띄이고 舊建物로는 獎忠褒烈祠가 滄色한 丹青에 殘骸를 僅保하였다. 진실로 感慨無量하다.²⁰⁾

3-2. 부속 건물

(1) 비각(碑閣)

충단비는 현재 장충단공원 내에 단사 장명등 2기와 함께 남아있다. 본래 장충단비는 남소문동천 동편, 양위헌과 마주보는 위치에 있었다. 『장충단영건하기책』에서 장충단비와 관련해서는 단청을 칠한 1칸의 비각과 19칸의 목책, 목책문 1곳이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 비각, 목책, 목책문은 단사, 요리정과 같이 부재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림 42>에서 장충단비는 6각형의 장대석을 두른 단 위에 있으며, 주변으로 목책이 둘러져 있다. 이러한 모습은 <그림 40>과 <그림 41>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0. 장충단비 (<그림 1> 세부)



그림 41. 장충단비 (<그림 3> 세부)



그림 42. 장충단비 목책과 비각 기단(<그림 7> 세부)



그림 43. 목책과 문설주 (<그림 17> 세부)

<그림 41>에서 비 주변으로 <그림 42>와 같이 6각형이 그려져 있어, 『장충단영건하기책』의 비각으로 추정되나 세부 모습을 확인할 수 없다. 다만 단사, 요리정 등과 같이 한식 목구조 형태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림 40>에서 비석 주변으로 정사각형의 목책이 표시되어 있으며, 비석 서쪽으로 길이 나 있다. <그림 42>에서 목책은 안쪽으로 경사진 버팀대를 둔 사각 말뚝 사이로 14~15개의 세로로 긴 판재를 상하 2개의 가로대로 연결하여 목책을 구성하고 있다. <그림 43>에도 목책 일부가 보이는데, 이 사진은 비석 뒷면에서 촬영된 사진으로 앞쪽의 목책과 함께 목책문 문설주가 보인다. 이 문설주는 목책의 2배 정도 길이이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볼 때 장충단비 목책은 장충단비 주변으로 정사각형 형태로 둘러졌으며, 측면과 후면은 각 5칸이며, 전면은 목책문을 포함하여 5칸으로 추정된다.

20) 『1939년도 김창제일기』 12월 24일, 안동교회 역사보존위원회, p.17.

(2) 양위헌(揚威軒)

양위헌은 단사 북쪽으로 동향을 하고 있다. 『장충단영건하기책』에서 양위헌은 중수된 건물로 규모는 17칸 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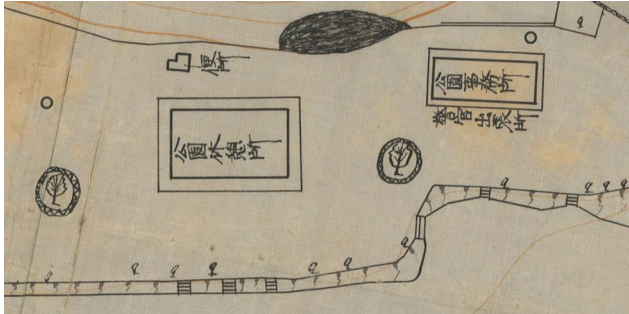


그림 44. 양위헌와 장무당(<그림 3> 세부)

양위헌 기단은 장대석으로 된 외벌대로, 평면은 정면 5칸, 측면 3칸 반으로 정면 어칸과 협칸은 폭이 같으나 퇴칸은 그보다 넓다. 측면은 첫 번째 칸과 두 번째 칸은 폭이 같으나 세 번째 칸은 폭이 가장 넓으며, 마지막 칸은 다른 칸에 절반 정도의 폭을 하고 있다.

초석은 방형으로 고막이로 벽돌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장충단영건하기책』의 홍전(紅甄)²¹⁾으로 기록되어 있다. 전면 5칸 모두 댓돌이 있으며, 좌우 첫 번째 칸에도 댓돌이 있다. 기둥은 초석과 같이 사각으로 전면과 측면 모두 주련이 걸려있으며, 공포가 없는 굴도리집이다. 어칸 상부에는 백색 바탕에 양위헌으로 글씨를 쓴 사변형(斜邊形) 현판이 걸려있다.

『장충단영건하기책』에서 양위헌 창호와 관련하여 양관문 37짝, 소양관문 18짝, 유리 쌍창문 6짝이 기록되어 있으며, 유리 42편(片)도 함께 기록되어 있다. 사진에서 양위헌 전면에는 2장의 유리가 끼워진 관문이 칸마다 4짝씩 총 20짝이 달려있다. 이는 『장충단영건하기책의』 양관문으로 추정된다.

양위헌 좌우 측면 첫 번째 칸에 댓돌이 놓여있는 것으로 보아 출입을 위한 문이 있던 것으로 보이는데, 사진에서도 2짝의 문이 확인된다. 이에 반해 나머지 칸에는 댓돌이 놓여있지 않아 출입을 위한 창호는 없던 것으로 보인다.

<그림 49>에서 열린 양위헌 정면으로 좌측면이 보이는데 3번째 칸까지 모두 창호가 열려있는 형태를 하고 있다. 이를 미루어봤을 때 2번째, 3번째 칸은 문 대신 창이 있던 것으로 보이며, <그림 46>에서는 마지막 칸에 창문이 확인된다. 이를 종합해 보았을 때 측면의

21) 홍전의 주석으로 가구하방(家樞下防)를 적고 있다.

첫 번째 칸은 문이며, 나머지 3개의 칸은 창을 둔 것으로 보인다.



그림 45. 양위헌 정면(<그림 8> 세부) 그림 46. 양위헌 우측면 상세(<그림 9> 세부)



그림 47. 양위헌 우측면 상세(<그림 11> 세부) 그림 48. 양위헌 박공면 (<그림 18> 세부)

『장충단영건하기책』에서 지붕과 관련된 부재로 선자연, 중방연, 부연이 기록되어 있으며, 사진에서도 겹처마에 팔작지붕을 하고 있다. <그림 48>에서 벽돌로 된 박공면이 보인다. 박공 중간에서 마름모꼴로 색을 다른 벽돌로 장식을 하였다.

양위헌 지붕에는 기와를 얹었는데, 『장충단영건하기책』에서 암막새, 수막새로 추정되는 자미방추(雌尾防雉), 웅미방추(雄尾防雉)가 기록되어 있다. 사진에서 암막새와 수막새는 추녀 끝 일부와 박공부분에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양위헌 벽체와 관련해서는 『장충단영건하기책』에는 심벽에 쓰이는 잡장, 괴목 등은 기록되어 있지 않으며, 도배와 관련된 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 이에 반해 벽선으로 쓰인 박판 382입(立) 기록되어 있어 심벽이 아닌 판벽 구조로 추정된다.

『장충단영건하기책』에서 장무당 바닥 구조와 관련하여 귀틀과 청판이 기록되어 있어 우물마루로 추정되며, 천정을 위한 목반자도 기록되어 있다.

이와 함께 장무당 창호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부품들도 기록되어 있는데, 정첩(釘牒), 회노(回槽), 은정쇄금(隱釘鎖金), 사기수용(砂器手傭), 동걸쇠[銅居乙釧] 등이 그것이다. 이것들의 용도는 명확하지 않으나 현재의 정첩, 잠금장치, 문손잡이 등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부품들은 전통 창호에서 돌쩌귀, 삼배목, 문고리를 대신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모자걸이[帽子巨里], 패등곡쇠(掛燈曲釧), 연통편철(煙筒片鐵) 등이 기록되어 있다. 이 중 모자걸이는 실내에서 모자를 벗는 서양 예절의 도입과 함께 새롭게 생겨난 물품이며,²²⁾ 패등곡쇠는

22) 1836년 5월 26일 민영환과 일행이 우즈벤스킨사원에서 진행된

단사와 같이 등을 걸기 위한 용도로, 연통편철은 마루로 되어있는 양위헌의 난방을 위해 설치한 난로 연통 설치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양위헌이 촬영된 사진은 모두 흑백으로 단청 유무를 알 수 없으며, 사진에서도 선이나 머리초 등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장충단영건하기책』에서 옥색유칠(玉色油漆)로 기록하고 있어 선과 그림이 들어가지 않는 가칠단청 형태로 옥색이 칠해진 것으로 보인다.



그림 49. 양위헌 창호에 부착된 철물들(<그림 6> 세부)

(3) 장무당(壯武堂)

장무당은 양위헌의 북쪽에 위치하며, 양위헌보다 작은 10칸으로 중수된 건물이다. 평면은 정면 5칸, 측면 2칸이며, 정면 어칸과 협칸 보다 퇴칸이 넓다. 기둥은 양무당과 마찬가지로 방형이며, 주련이 걸려있으며, 공포 없는 민도리집이다.

『장충단영건하기책』에서 장무당 창호는 양판문 34짝, 소양판문 4짝과 유리 40편이 기록되어 있다. 장무당 정면은 양위헌과 같이 유리가 2장씩 끼워진 판문이 칸별로 4짝씩 총 20짝이 달려있다. 이는 『장충단영건하기책』의 양판문으로 추정된다.

장무당의 지붕 부재로는 추연(追椽), 대연(大椽), 마족연(馬足椽) 등이 사용되었다. 양위헌과 달리 부연이 없는 흘처마로 추녀도 선자연이 아닌 마족연을 하고 있다. 기와로는 양위헌과 같이 자미방추(雌尾防雉), 웅미방추(雄尾防雉)가 기록되어 있는데, 추녀일부와 박공 일부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그림 50>에 장무당 박공면이 확인되는데 양위헌과 같이 벽돌로 마감하였다.

벽체는 심벽용 재료와 도배를 위한 내용이 없고, 벽선용 박판(薄板) 137립이 기록되어 있어 판벽으로 추정된다. 바닥은 귀틀, 청판 등이 기록되어 있어, 우물마루로 추정되며, 천정은 반자용 부재가 포함되지 않아 연등천정으로 생각된다.

러시아황제 대관식에 관모를 벗지 못해 입장하지 못하였던 것과는 달라진 모습이다.
민영환 저, 조재곤 편역, 『해천추범』, 책과 함께, 2013.

장무당은 양위헌과 마찬가지로 정첩(釘牒), 회노(回槽), 은정쇄금(隱釘鎖金), 사기수용(砂器手傭), 동걸쇠[銅居乙釧], 모자걸이[帽子巨里], 과등곡쇠(掛燈曲釧), 연통편철(연筒片鐵) 등 물품이 사용되었다.



그림 50. 장무당 박공 그림 51. 장무당(<그림 9> 세부 <그림 6> 세부)

(4) 요리정(料理亭)

요리정은 장충단 남편에 위치한다. 『장충단영건하기책』에서 요리정은 「요리정금목책신건여화원화계석가산보토수설소입(料理亭及木柵新建與花苑花階石假山補土修設所入)」에 기록되어 있다.

요리정은 30칸으로 단사, 비각 등과 같이 부재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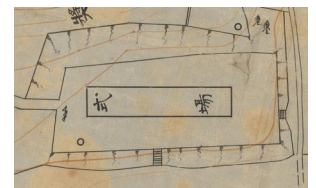


그림 52. 요리정(<그림 1> 세부) 그림 53. 요리정(<그림 3> 세부)

각종 도면에서 요리정은 장방형이다. 전기박물관에 소장된 사진을 통해 요리정의 대략적인 모습을 알 수 있다. 사진은 요리정 동쪽에서 촬영된 것으로 요리정은 정면 12칸, 측면 2칸으로 총 24칸이다. 이는 『장충단영건하기책』의 30칸보다 작은 것으로 단사와 마찬가지로 건물 면적을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요리정은 벽체 없이 기둥을 세우고 기둥 상부에 대각선의 버팀대를 두어 상부 구조를 받치는 단순한 형태이다. 기둥 사이 몇몇 칸에는 난간을 두었으며, 일부는 난간 없이 통로로 쓰였다. 지붕 형태는 우진각이며, 재료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으나, 단사와 같이 골판재를 이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요리정과 유사한 건물로는 전차매표소가 있다. 보스트워크 앨범의 서대문전차매표소는 요리정과 같이 우진각 지붕으로 기둥에 대각의 버팀대가 있으며, 골판재로 지붕을 마감하였다. 또 사방이 트여있으며, 기둥 아래로 난간을 둘렀다.



그림 54. 목책 안으로 요리정 난간이 있는 부분(좌측 칸)과 없는 부분(우측 칸)이 구별된다.<그림 14> 세부



그림 55. 서대문 전차매표소 그림 56. 요리정 목책문
<그림 14> 세부

요리정은 별도의 벽체가 없어 명칭에 정(亭)을 사용한 것으로 생각되며, 요리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이곳에서 직접 요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장충단체를 지낼 당시 제례 중 진행된 입식(立食)을 위해 쓰인 곳으로 추정된다.²³⁾

『장충단영건하기책』에서 요리정 목책은 38칸으로 2곳에 자물쇠를 갖춘 목책문을 두었고, 목책과 목책문을 모두 회색으로 칠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림 52>에서 목책이 확인되는데 동쪽과 북쪽은 전체에 둘러있으나, 남쪽과 서쪽은 일부분에만 목책이 있다. 사진에서 목책은 비각 목책과 유사한 형태로, 다만 기둥 사이에 7개의 판재와 가로대는 위로 2개, 아래에 1개로 총 3개를 두었다. 목책문 좌우로 문설주가 있는데, 목책보다 높은 각재로 되어있으며, 그 사이에 2짝의 문이 있다. 문 아래는 판문에 X자의 부재를 대었고, 위쪽으로 목책과 같은 살을 U자형으로 대었다. 두 문짝 가운데로는 잠금장치로 보이는 것이 가로질러 있다.

이 밖에도 『장충단영건하기책』에는 요리정과 관련하여 철홍예장명등(鐵紅霓長明燈)이 기록되어 있다. 철홍예장명등은 2좌(坐)가 설치되는데, <그림 57>에서 그 모습이 확인된다. 문설주 위로 철로 된 홍예를 두고

그 중앙에 등을 달아 놓은 형태이다. 이와 유사한 등은 서대문정거장 인근에 있었던 스테이션호텔과 무관학교, 인천 일본영사관 등에서도 확인된다.



그림 57. 요리정 철홍예장명등
<그림 9> 세부



그림 58. 무관학교 정문



그림 59. 스테이션 호텔



그림 60. 인천 일본영사관

(5) 전사청(典祀廳)

전사청은 단사 남쪽에 위치하며 북향을 하고 있다. 『장충단영건하기책』에서 전사청은 회색유칠(灰色油漆)을 한 6칸의 건물로 전사청 주위로 14칸 반의 석장(石牆)을 둘렀으며, 일각문 2개가 있었다.

<그림 61>에서 전사청 앞으로 경사면이 있으며, 좌우로 전사청과 연결되는 진입로가 있다. <그림 62>에서는 이 두 진입로의 끝에 문 위치가 표시되어 있는데 바로 『장충단영건하기책』에 기록된 일각문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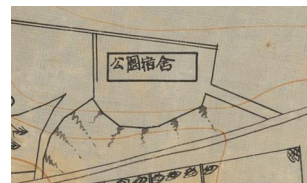


그림 61. 전사청
<그림 3> 세부



그림 62. 전사청
(장충단공원평면도 세부)

전사청은 도면 외에 사진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모습을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지도에서 전사청은 장방형 건물로 정면 3칸, 측면 2칸 또는 정면 4칸, 측면 1.5칸으로 추정되는데, 광창 4개와 만살분합[萬箭分閤] 16짝이 사용되어 정면 4칸의 집으로 추정된다.

23) 홍현도, 「『獎忠壇祠 기념사진』 촬영 시기와 獎忠壇祭 운영」, 『서울과 역사』 No.109, 2021, p.194.

바닥 재료 중 청판이 포함되어 있으며, 도배를 위한 종이와 도배장이 기록되어 있어 마루와 방으로 구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벽체는 잡장, 괴목, 초삭, 세사, 사벽 등 심벽 재료가 포함되어 있다. 지붕 부재 중 대연, 박공을 위한 장송 등이 있으나 선자연이 없어 맞배지붕으로 생각된다.

(6) 고직처소, 사졸처소 등



그림 63. 부속 건물군 (<그림 1> 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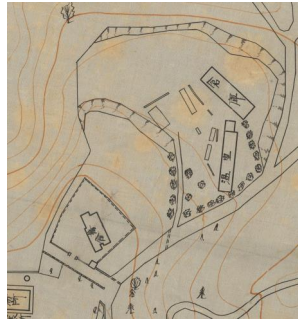


그림 64. 부속 건물군 (<그림 3> 세부)



그림 65. 장충단 북쪽 건물군(<그림 10> 세부)

장충단 부속 건물 중 정확한 위치가 확인되지 않은 건물로는 고직처소, 고사, 사졸처소, 측간 등이 있다.

이 건물 중 측간을 제외한 나머지 건물은 기존의 건물을 수리한 것으로 남소영 훼손 이전에도 있던 건물로 추정된다. 『장충단영건하기책』에서는 고직처소와 고직 3칸, 측간 1칸이 함께 기록되어 있으며 사졸처소와 측간은 각각 기록되어 있다.

<그림 63>에서 장충단 영역 가장 북쪽으로 건물군이 있으며, <그림 65>에서도 장무당 뒤쪽으로 건물들을 확인할 수 있다. 장무당 뒤쪽 가까이 ㄷ자 건물에 일각문과 담장을 갖춘 건물이 있으며, 그 뒤쪽 경사로도 여러 칸의 행랑과 솥을대문이 있다. 솥을대문 안으로 가로로 긴 맞배지붕의 건물이 확인되며, 그 왼편으로도 건물 한 채가 보인다.

『장충단영건하기책』에서 고직처소와 고사, 측간은 같은 목차에 기록되어 있어 같은 영역에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 고직처소는 우물마루를 이루는 귀틀과 청판 등이 쓰였으며, 빗마루를 두었다. 벽체는 심벽을 구성

하는 잡장, 괴목 등이 기록되어 있어 일부는 심벽구조로 보이며, 도배를 위한 종이와 배접장이 포함되어 있어 마루와 방이 함께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 창호로는 쌍창, 영창, 광창 등이 쓰였으며, 천장과 관련하여 2칸 반 반자들을 위한 평오리(平吾里)와 마감을 위한 반자지(斑子紙)가 포함되어 있다. 지붕과 관련하여 중연, 소연 등이 있으나 추녀 부재가 없어 맞배형태로 추정되며, 양철차양(洋鐵遮陽)으로 처마를 확장한 것으로 보인다. 고직처소 주변으로는 일각문 1개와 토장 19칸을 둘렀으며, 두 곳에 축대를 쌓고 수도와 은구를 두었다.

일각문과 토장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그림 65>의 장무당 뒤쪽 건물 중 장무당과 제일 가까이 ㄷ자 평면으로 전면에 일각문과 담장을 두른 건물은 고직처소로 추정된다.

『장충단영건하기책』에서 사졸처소 수리와 관련된 기록은 고직처소에 비해 적은 편이다. 창호와 관련하여 영창과 쌍창이 쓰였으며, 고직처소와 같이 양철차양이 설치되었다. 내부 수장과 관련하여 도배지와 도배장이 포함되어 있어 방을 갖춘 것으로 추정되나 보다 정확한 구조는 확인하기 어렵다.

<그림 3>에서 양위헌 뒤쪽으로 ㄷ자 모양의 변소가 있다. 『장충단영건하기책』에서 측간은 4칸으로 새로 지은 건물이었다. 측간 기둥 9개로 평면을 구성하고, 양목(樑木), 인방(因防), 중방목(中防木) 등으로 목구조를 구성하였다. 장충단 내 쓰인 물건을 기록한 「보진물종소입(補陣物種所入)」에서 측간과 관련해서 철통(鐵筒)을 갖춘 대변기와 소변기가 포함되어 있다.

5. 결론

지금까지 『장충단영건하기책』과 다양한 시각자료로 살펴본 장충단과 건물들의 특징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충단은 남소문동천을 가운데 두고서, 동서로 여러 단 차를 두고 건물을 배치하였다. 이러한 단을 오르내리기 위하여 계단이 놓였으며, 계단을 통해 각 건물이 연결되었다. 또 남소문동천과 이에 유입되는 지류를 건너기 위해 곳곳에 다리를 놓았다. 이러한 단의 구분은 건물의 위계를 구분하였으며, 단과 다리는 장충단 제례시 치작(致酌), 분열, 입식 등을 위한 구획과 연결의 역할도 하였다.

둘째, 장충단 내의 건물은 한식 목구조(양위헌, 장무당, 부속시설), 중국 양식이 가미된 조적조(단사), 단순

목구조(요리정, 비각) 등으로 다양한 형식이 혼재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 건물군이 집합된 곳에서 다양한 형식이 혼재된 것은 당시 대한제국 관영건축 특징으로 볼 수 있다. 경운궁의 경우에도 기존 한식목구조의 궁궐건물을 기본으로 하여 돈덕전, 정관헌, 원수부 등의 서양식 건물이 지어진 것에서 이와 관련한 유사점을 찾을 수 있다.

셋째, 장충단 건물은 개항으로 유입된 형식들이 반영되었다. 단사는 중국식이 가미된 조적 건물이며, 비각, 요리정은 단순한 서양식 목구조였다. 기존 건물을 증진한 양위헌, 장무당의 경우에도 유리창과 붉은 벽돌과 같이 서양 건축재료를 사용하였다. 이렇게 장충단 내 건물에는 새로운 형식이 반영되었지만, 장충단제를 지내는 단사 평면은 조선시대 사당의 형태를 반영하였다. 이러한 모습은 광무개혁의 기본 이념인 구본신참(舊本新參)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연구를 통하여 장충단 부지와 건축에 대한 대략적인 모습을 알아보았다. 하지만 단사의 내부 기물 배치와 양위헌, 장무당의 쓰임, 고직처소와 사졸처소의 세부적인 구조는 아직 정확히 밝혀내지 못했다. 특히 양위헌은 장무당 보다 규모가 크고, 겹처마에 전면에 3개의 계단을 둔 것으로 보아 격이 높은 건물로 추정되는데, 이름 자체로는 장무당보다 격이 낮은 헌(軒)을 쓴 점이 의문에 남는다. 향후 연구를 통하여 장충단에 배설된 기물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각 건물의 용도에 대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장충단영건하기책』
- 『매일신보』
- 『일본관광단기념사진첩』
- 『조선일보』
- 『조선신문』
- 『충의공가자』
- 일한서방, 『한국풍속풍경사진첩』 제3집, 1908.
- 김해경 외, 「일제강점기 장충단 공원 변화에 관한 시계열적 연구」, 『한국전통조경학회지』 31-4, 2013.
- 박희용, 「대한제국기 獎忠壇의 조성배경과 공간구성」, 『서울과 역사』 93, 2016.
- 윤기엽, 「장충단·박문사의 사적(史的) 변천과 그 의미 - 일제강점기 장충단의 공원화와 박문사 건립을 중심으로」, 『한국사상문화학회』 85, 2016.
- 이상배, 「장충단의 설립과 장충단제」, 『지역문화연

- 구』 4, 2005.
- 이지수 외, 「개항 이후 대한제국기까지 육군 복식의 상징 문양에 대한 연구」, 『한국복식학회』 No. 70 Vol. 4, 2020.
- 홍현도, 「「獎忠壇祀 기념사진」 촬영 시기와 獎忠壇祭 운영」, 『서울과 역사』 109, 2021.
- 국립고궁박물관, 『조선왕실의 현판 I』, 국립고궁박물관, 2020.
- 문화재청, 『궁궐 현판 고증조사』, 문화재청, 2015.
-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궁중유물도록』, 1986.
- 민영환 저, 조재곤 편역, 『해천추범』, 책과 함께, 2013.
- 박상형, 『벽전 - 우리나라 벽돌 건축의 조영원리』, 시공문화사, 2010.
- 안동교회 역사보존위원회, 『1939년도 김창제일기』.
- 양상현 외, 『그리피스 컬렉션의 한국사진』, 눈빛, 2020.
- 이순우, 『꼬레아 에 꼬레아니』, 하늘재, 2009.
- 서울특별시, 『서울육백년사』, 서울특별시, 1981.
-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의 전차』, 2019.

접수(2022. 03. 11)

수정(1차: 2022. 05. 01)

게재확정(2022. 05. 10)